

'24년 산업부 R&D예산은 사업성과, 투자우선순위, 미래전략 등을 고려해 편성됨

<보도 주요내용>

10.6(금) 이데일리 「원칙없는 산업 R&D예산 삭감, 우수 사업도 싹둑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평가 결과 '우수' 평가 사업 10개 중 9개는 감액하고 '보통' 평가 사업 6개는 증액하였는 바, 예산 조정 기준에 문제가 있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진행 중인 과제의 지원도 어려워졌다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'24년 산업부의 R&D 예산은 사업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, 재정여건, 투자우선순위, 미래성장전략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 감액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·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협약을 변경하고, 해당 과제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 권	(044-203-4510)
		담당자	사무관	정재욱	(044-203-4526)